

모퉁이를 남기십시오 (룻기 2:15-20)

✚ 말씀 나누기

1.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베풀어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2. 다른 사람의 작은 배려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3. 이번 주 우리의 삶에서 말과 물질, 시간 중 어떤 모퉁이를 남겨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 함께 기도하기

1.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의 모퉁이를 남겨두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에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2. 사랑의 모퉁이를 남기는 삶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는 배려와 온유함을, 물질에는 기쁨의 나눔을, 시간에는 사랑의 섬김을 남기게 하옵소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작은 헌신을 통해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사와 소망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지금까지 지내온것(301장)



1. 지 금 까 지 지 -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 혜 라
 2. 몸 도 맘 도 연 - 약 하 나 새 힘 받 아 살 -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 올 날 이 날 로 날 로 다 - 가 와

5 한 이 없 는 주 - 의 사 랑 어 찌 이 루 말 - 하 라
 물 붓 듯 이 부 - 으 시 는 주 의 은 혜 족 - 하 다
 무 거 운 짐 주 - 께 말 겨 벗 을 날 도 멀 - 잼 네

10 자 나 깨 나 주 - 의 손 - 이 항 상 살 퍼 주 - 시 고
 사 랑 없 는 거 - 리 에 - 나 험 한 산 길 헤 - 맬 때
 나 를 위 해 예 - 비 하 - 신 고 향 집 에 돌 - 아 가

15 모 든 일 을 주 - 안 에 - 서 형 - 통 하 게 하 - 시 네
 주 의 손 을 굳 - 게 잡 - 고 찬 - 송 하 며 가 - 리 라
 아 버 지 의 품 - 안 에 - 서 영 - 원 토 록 살 - 리 라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됩시다.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룻기에는 따뜻한 넉넉함을 가진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온 동네가 보리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할 때, 이방 여인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지만 룻에게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내쫓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본론 1 |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은혜 모퉁이를 남겨두셨습니다.

룻기 2장 3절에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래전 주신 그 말씀이 룻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가족,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모퉁이를 우리에게 남겨 두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본론 2 | 내가 남긴 모퉁이는 누군가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하루 동안 보리 한 에바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본 나오미는 놀랐고,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아스가 남긴 작은 모퉁이가 나오미에게는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밭에 한 모퉁이가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삶의 작은 이삭이 누군가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물질과 사랑, 시간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다른 사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본론 3 |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모퉁이를 남겨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받은 음식을 혼자 다 먹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랑의 모퉁이를 남긴 것입니다.

모퉁이를 남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두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세 가지 모퉁이를 남겨야 합니다.

첫째, 말의 모퉁이입니다. 내가 옳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한마디를 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가 갈등을 줄이고 사랑을 세웁니다.

둘째, 물질의 모퉁이입니다. 내 필요를 모두 채우기 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셋째, 시간의 모퉁이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과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결론 |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모퉁이를 남깁시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의 모퉁이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과 물질과 시간의 모퉁이를 기쁨으로 남기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